

2019년 5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관세 발효 현실화 우려로 하락 라이트하이저 “10일 관세 발효 될 것”

Worst 시나리오 발생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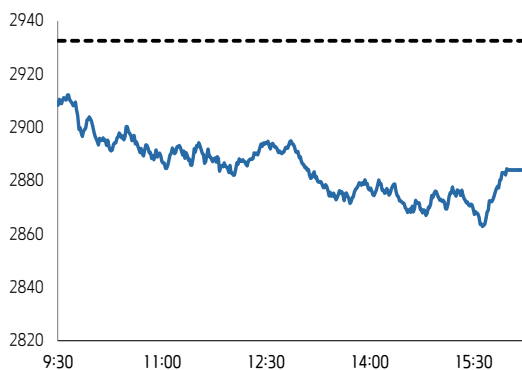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 협상단의 방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 전일 장 마감 후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일(금) 대 중국 관세 부과를 단행 할 것이라는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특히 중국향 매출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으며 이는 관세 발효의 현실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다우 -1.79%, 나스닥 -1.96%, S&P500 -1.65%, 러셀 2000 -2.0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발언 이후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일 미 증시는 중국 무역협상 대표단의 방미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폭이 축소 되었으나, 오늘은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협상 불구 10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이라고 언급한 여파로 급락. 주요 투자회사들은 추가 관세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위험자산 축소를 언급 하는 등 부담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발효’ 라는 Worst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음. 실제 오늘 미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로 관련 종목들과 업종 위주로 매물이 출회.

그렇다면 Worst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4 분기가 있으나 당시와는 일부 다름. 당시 미 증시는 9월 말 관세 발효후 경기둔화 이슈까지 유입되며 12월 말까지 14% 급락. 특히 S&P500 기준 12개월 Fwd PER 이 16.8 배를 기록해 5년 평균(16.4 배)를 넘어서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수 조정의 한 몫. 이번에도 PER은 16.8 배까지 올라가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음.

그러나 최근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바닥 조짐이 나오고 있으며, 미 연준을 비롯해 ECB, 중국 인민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 들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감도 높음. 여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돌아서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투자심리 또한 우호적.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 경기둔화 이슈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로 주가지수는 10%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76.99	-0.88	홍콩항셱		29,363.02	+0.52
KOSDAQ		753.45	-1.10	영국		7,260.47	-1.63
DOW		25,965.09	-1.79	독일		12,092.74	-1.58
NASDAQ		7,963.76	-1.96	프랑스		5,395.75	-1.60
S&P 500		2,884.05	-1.65	스페인		9,235.10	-1.03
상하이종합		2,926.39	+0.69	그리스		758.97	+0.63
일본		21,923.72	-1.51	이탈리아		21,219.14	-0.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2% 하락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대 중국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매물을 내놓았다. 특히 전체 매출의 73%가 중국향인 윈 리조트(-4.00%)가 급락 했으며, 65%를 차지하는 퀄컴(-3.46%)을 비롯해 브로드컴(-1.37%), 마이크론(-4.44%), 마벨 테크(-2.37%), TI(-1.67%) 등 중국향 매출이 50% 내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동반 급락 했다. 그 외 AMD(-2.77%), 스카이웍(-3.43%), 인텔(-1.44%), 애플(-2.70%), 웨스턴디지털(-4.704), 자일링스(-0.84%) 등 중국향 매출 상위 종목들도 낙폭이 컸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2% 하락 했다.

한편, 보잉(-3.87%) 등 항공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캐터필라(-2.26%), 디어(-1.51%) 등 기계업종, 3M(-2.14%) 등도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급락 했다. 더불어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JP모건(-1.63%), BOA(-1.81%), 씨티그룹(-3.20%) 등 금융주가 하락 했다. 반면, AIG(+6.77%)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으며, GM(+1.16%)은 자율주행 사업부문에 소프트뱅크가 190억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0%	대형 가치주 ETF(IVE)	-1.68%
에너지섹터 ETF(OIH)	-2.51%	중형 가치주 ETF(IWS)	-1.45%
소매업체 ETF(XRT)	-1.74%	소형 가치주 ETF(IWN)	-1.71%
금융섹터 ETF(XLF)	-1.65%	대형 성장주 ETF(VUG)	-1.86%
기술섹터 ETF(XLK)	-2.15%	중형 성장주 ETF(IWP)	-1.9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48%	소형 성장주 ETF(IWO)	-2.22%
인터넷업체 ETF(FDN)	-2.06%	배당주 ETF(DVY)	-1.22%
리츠업체 ETF(XLRE)	-1.7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59%
주택건설업체 ETF(XHB)	-1.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2%
바이오섹터 ETF(IBB)	-2.94%	미국 국채 ETF(IEF)	+0.34%
헬스케어 ETF(XLV)	-1.92%	하이일드 ETF(JNK)	-0.58%
곡물 ETF(DBA)	-0.38%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2.28%	Long/short ETF(BTAL)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1.23	-0.62%	-3.71%	-6.30%
소재	343.52	-1.82%	-4.54%	-5.16%
산업재	640.52	-2.04%	-2.65%	-0.89%
경기소비재	934.39	-1.46%	-1.86%	+0.05%
필수소비재	583.58	-1.00%	-1.69%	+1.22%
헬스케어	1,028.70	-1.95%	-0.45%	-3.42%
금융	454.60	-1.69%	-2.23%	+2.84%
IT	1,343.21	-2.12%	-2.79%	+0.42%
커뮤니케이션	164.87	-1.36%	-1.56%	+1.72%
유틸리티	292.84	-0.31%	-1.65%	+0.10%
부동산	220.03	-1.78%	-1.36%	-2.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7% MSCI 신흥 지수 ETF 도 1.9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5,195 계약) 여파로 3.90pt 하락한 277.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1.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2% 가까이 하락 했다. 특히 중국향 매출이 많은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 했다. 이는 한국 증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해 9~10 일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투자회사들이 10 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Worst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대 중국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매물을 내놓아야 된다는 시나리오인데 이는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분간 위험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비롯해 주요 수급 주체들은 적극적인 대응 보다는 선물매매를 통해 시장에 대응을 하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션만기일(9 일)을 앞두고 이러한 경향이 높아 질 수 있어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중국 4 월 수출입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전년 대비 2.3% 증가, 수입은 전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월 발표보다 수출증가폭은 둔화되고, 수입 감소폭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각 오후 3 시 독일의 3 월 산업생산이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0.5%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위안화와 유로화의 변화는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EU, 2019 년 GDP 성장률 2 월 보다 0.1%p 하향 조정한 1.4% 전망.

3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14.2 만건) 보다 개선된 748.8 만건을 기록했다. 이직률은 2.3%를 유지 해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함을 알 수 있다.

EU 는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해 1.4%, 유로존 GDP 성장률에 대해 1.2%로 전망 했다. 이는 지난 2 월 발표 보다 각각 0.1%p 하향 조정한 수치다. 한편, 독일 성장률은 1.1%에서 0.5%로 하향 조정 폭이 컸는데 예상보다 회복이 느리다는 분석이다. EU 는 이에 대해 지난 연말 글로벌 무역 갈등, 신흥국 성장률 부진, 브렉시트 등에 기인한다고 발표 했다. 다만, 2020 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한편, 미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산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 하는 등 공급 증가 우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수요 부진 등이 하락 요인 이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낙폭은 제한 되는 경향을 보였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 우려감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미국 고용지표 개선 및 EU 의 2019 년 GDP 성장을 하향 조정 등도 영향을 줬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성장을 하향 조정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4%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대부분 0.5% 내외의 약세 움직임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반면,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6 배)를 하회한 2.48 배, 간접 입찰도 12 개월 평균(46.0%)를 하회한 37.9%에 불과하는 등 국채 수요 부진은 금리 하락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는 양호하지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은 없다” 라고 주장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또한 클라리다 부의장은 “미-중 무역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언급 했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0%, 철근도 1.0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1.40	-1.37	-3.93	Dollar Index	97.565	+0.05	+0.09
브렌트유	69.88	-1.91	-3.03	EUR/USD	1.1192	-0.06	-0.21
금	1,285.60	+0.14	-0.01	USD/JPY	110.31	-0.41	-1.00
은	14.926	-0.01	-0.39	GBP/USD	1.3075	-0.17	+0.33
알루미늄	1,816.00	+1.14	-0.66	USD/CHF	1.0195	+0.15	+0.02
전기동	6,180.00	-0.90	-3.38	AUD/USD	0.7012	+0.30	-0.51
아연	2,692.00	-2.85	-3.58	USD/CAD	1.3471	+0.17	+0.62
옥수수	366.50	+0.62	+1.10	USD/BRL	3.968	+0.01	+0.64
밀	439.50	+0.51	+2.51	USD/CNH	6.7969	+0.35	+0.89
대두	830.75	+0.06	-2.72	USD/KRW	1166.50	-0.30	+0.47
커피	88.00	-2.38	-5.53	USD/KRW NDF1M	1171.20	+0.26	+0.7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455	-1.44	-4.70	스페인	0.961	-1.90	-3.70
한국	1.885	-1.70	+1.00	포르투갈	1.090	-2.60	-2.20
일본	-0.052	-1.20	-1.20	그리스	3.339	+0.60	+4.00
독일	-0.038	-4.40	-5.10	이탈리아	2.618	+4.10	+6.40